2026. 4.20

FI Weekly

채권 김지나
6148 / jnkim0526@eugenefn.com

인상 가능성 열어두기

❝ 15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음. 예**상대로 아주 매파적이지도 않았지만, 시장의 인상 우려를 진정시키기에도 부족**했음. 청문회의 주 내용은 외화자산 보유, 장녀의 국적 문제 등 신상에 관련된 내용이 더 비중이 컸음.

❝ 가장 중요했던 것은 **물가에 대한 입장. 신현송 후보자에 대해 가장 잘 알려진 성향은 '실용적 매파'**임. 현재 통화정책 대응 여부는 전쟁 장기화 및 국제유가 회복 등 외부 요인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매파적 성향을 강화할 만한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컸음.

❝ 신 후보자, 매파라는 평가를 받게 된 주요 발언인 **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언급에 대해서는 2022년 물가 급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**. 그에 반해 현재 **중동 사태가 일시적이라면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 없다는 입장**을 밝혔음. 또한 한은의 목표인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안정적 성장의 기반이라고 언급. 여기까지는 지극히 원론적인 발언으로 해석 가능.

❝ 이후 그는 **한국처럼 유가에 민감한 경제는 유가 충격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며, 물가만큼은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. 물가와 성장 중 물가에 무게를 두며, 중동 리스크의 2차 파급 시 통화정책(인상)을 써야한다**는 입장을 전달.

❝ 당사, 4월 금통위 통방문과 기자회견, 추경 등을 근거해 **1) 한국은행이 아직은 성장 하방 위험보다는 물가 상방 위험을 좀 더 크게 보고 있고 2) 향후 통화정책에서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성장률보다 물가라고 판단** 했었음. 만약 5월 말 경제전망에서 **2% 중반 물가와 2%를 소폭 하회하는 성장률 전망을 공개한다면 인상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임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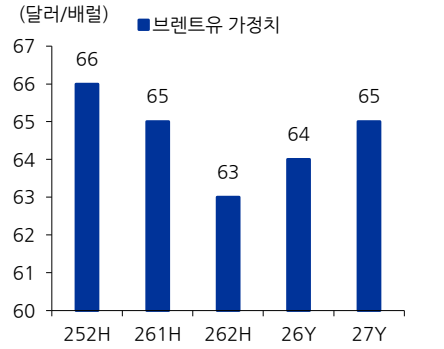
❝ 다만 지금 **관건은 국제유가 전망치의 변화. 한은은 지난 2월 경제전망에서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 전망치를 상반기 평균 65불, 연간 64불로 가정**해 물가 및 수출입 등을 계산. 4월 17일 기준 종가 90.38불, 3월 이후 평균 99.85불, 연간 평균 82.15불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. **상반기 본 유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은 상반기 동안 유가가 40불대에서 안정되어야만 가능. 4월말 종전, 5월부터 전쟁 이전 수준의 유가로 바로 회복한다고 가정해도 브렌트유 상반기 평균은 76.6불로 기존 가정 대비 대폭 상향** 불가피. 이처럼 국제유가 전망치가 상향된다면 물가에 대한 일회성 대응, 즉 하반기 1회 정도의 인상은 열어 둬야 한다고 봄.

❝ 종합하면, **현재로서 국내 기준금리 동결을 확신할 수 없고, 인하 가능성은 없음**(매우 강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). 종전 및 국제유가 수준 등 복잡한 조건부이긴 하나, **인상을 열어놓고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**.

2022년 대비 아직 약한 물가압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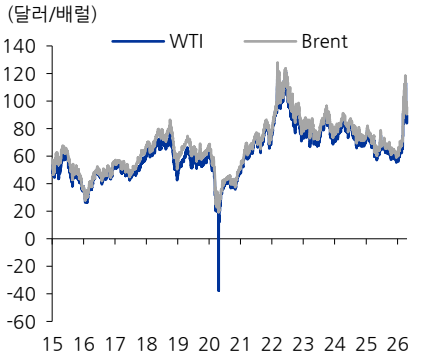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유진투자증권

한국은행 국제유가 전망치



자료: 한국은행,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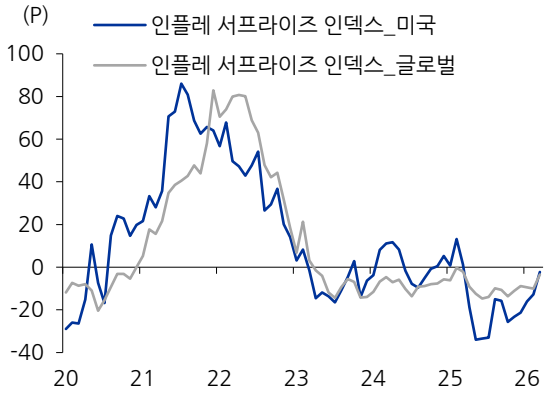
현재 국제유가 상황


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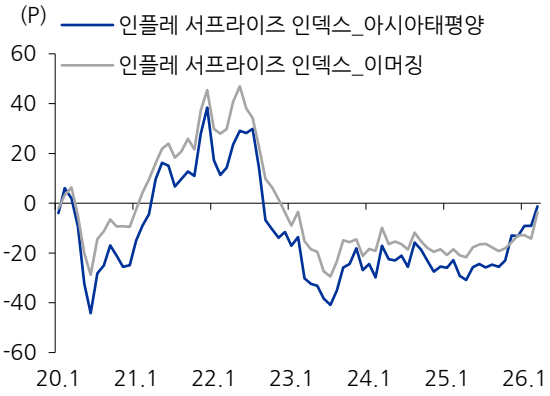
유진투자증권

2022 년 대비 아직 약한 물가 압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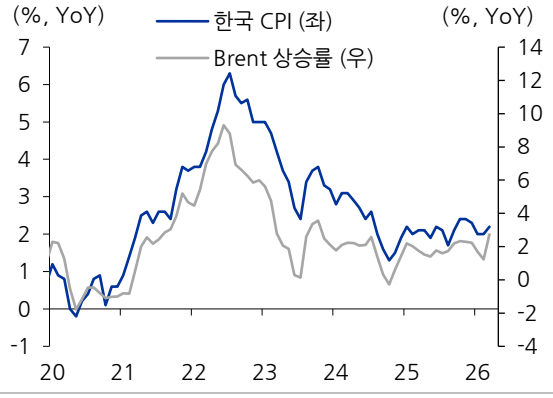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2022 년 대비 아직 약한 물가 압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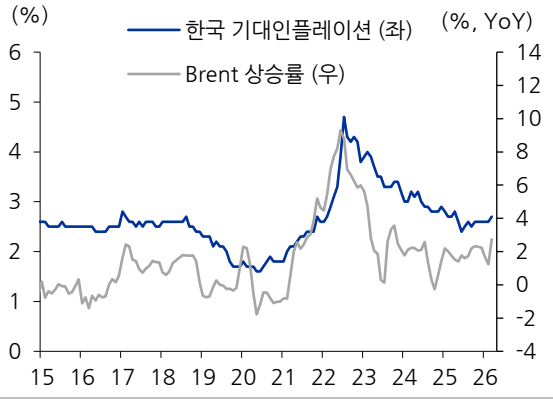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한국 물가와 유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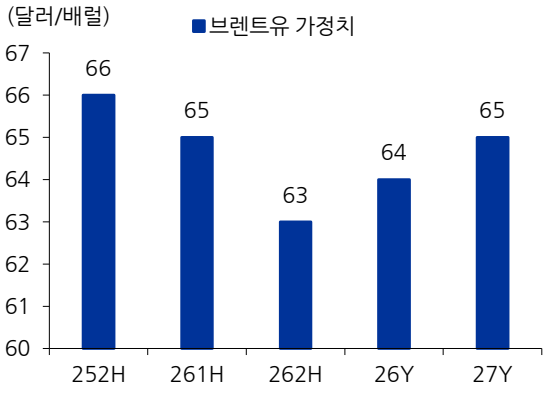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, 유진투자증권

기대인플레이션과 동행하는 유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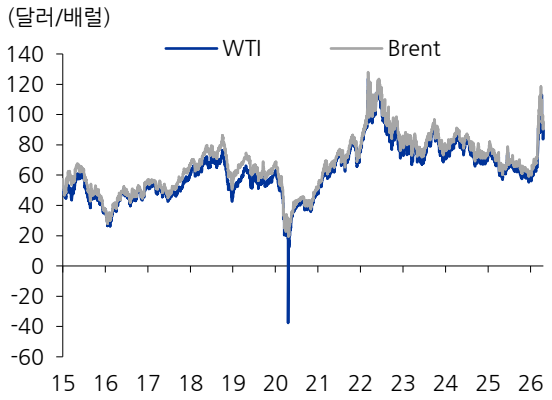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한국은행이 가정한 브렌트유 전망



자료: 한국은행,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올해 국제유가 흐름


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